

세화·천연염색·한국화... 별별 호랑이 모였다

임인년 호랑이 주제 기획전 잇따라
우제길미술관 1월 한 달 '호호전'
나주천연염색재단 50인 초대전

2022년 임인년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전시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첫 번째 전시는 우제길 미술관의 '호호전(好虎展)'. 이번 전시는 호랑이를 주제로 세화(歲畵)의 의미를 담은 작품을 중심으로 오는 31일 까지 1월 한 달간 개최된다.

세화(歲畵)는 조선 시대에 새해를 축하하는 뜻으로 대궐에서 만들어 임금이 신하에게 내려 주던 그림을 뜻한다. 이번 전시는 작가 개개인의 다양한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 담긴 작품을 통해 미술이 가지고 있는 긍정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2022년 새해가 여유와 행복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고자 기획했다.

전시에는 조윤성·김유섭·문형선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는 조선대 대학원 서양화 전공 작가 23명이 함께했다. 참여작가는 김선화·김유순·김 별·김월숙·나윤주·박경희·박정일·배일섭·범지선·백설·서병주·손홍려·송지윤·양호열·윤형·유포숙·이영숙·이은영·정승희·조위남·최문희·홍자경·황영일 등이다.

재단법인 나주천연염색재단 또한 50인의 작가가 호랑이를 주제로 그린 다양한 작품을 한국천연염색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전시한다.

초대전에는 단청·그림·목공예·서예·수채화·



곽수경 작 '안부 인사' /나주천연염색재단 제공

자수·펠트·천연염색·한국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작품 속 호랑이들은 비슷하면서도 각자 다른 매력을 뽐낸다. 박수경 작가의 섬유공예 작품 '안부 인사'는 '까치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호랑이는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는 민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이다. 빨간 니트 티셔츠에 한 손에는 스타벅스 컵을,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앉아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까치를 휴대폰 케이스에 그려낸 부분에서는 작가의 재치가 느껴지기도 한다.

양모를 이용한 니들 펠트로 호랑이를 표현한 윤성운 작가의 '범 내려온다'는 호랑이의 붉은 선과 검붉은 빛의 배경을 통해 강렬한 느낌을 선사한다. 양모라는 재료가 가지고 있는 부드러움과 털만이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호랑이의 털로 표현됨으로서 더욱 생생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국가무형문화재48호 단청장 명예보유자 개인 박정자 작가의 '비호'는 그 강렬한 색감과 불을 뿜는 듯한 묘사로 단청에 눈길을 사로잡는다. 장복수 화가의 작품 '응시' 또한 그 검은 배경과 대비되는 깊은 눈과 거친 붓의 질감 등을 통해 표현된 호랑이의 거친 느낌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김왕식 한국천연염색박물관장은 "이번 초대에 전시된 다양한 호랑이 작품을 통해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힘찬 기운으로 새해 소망과 코로 나19 위기를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초대전은 한국 천연염색박물관에서 내달 5일까지 진행된다. /오지현 기자

전남관광 디카시 '웃음꽃 전남'

선학동 마을 메밀꽃을 보며
구판순

검약과 절제가 묻어나
검은 생각을 버리고 울긋불긋 마음으로
청렴을 불러 노래하고 노래하네

'무등산·광주' 학술대회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12일 김남주기념홀

전남대학교가 고대 역사 속에서 무등산과 광주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흥미로운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원장 이성원 교수)과 호남지역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지역사연구소(소장 변동명)는 오는 12일 오후 1시 전남대 김남주 기념홀에서 '무등산과 광주-무등산, 광주 사람들을 품다'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갖고, 삼국에서 통일신라에 이르는 시기를 중심으로 광주 지역사회의 연관 속에서 무등산을 다각적으로 살펴본다.

학술대회에서는 삼국·통일신라 시기 광주의 역사적 흐름에 비춰 무등산을 조망하며, 산과 관련된 사람들의 지난날을 훑어본다. 또 당시 광주의 중심지를 알아보고, 나아가 무등산 일원의 전통적 수리체계와 도시 공공화의 균열들까지 더듬어 보는 등 시대적 변화 속에서 무등산과 광주 지역사회의 추이와 지역적 가치를 알아본다.

이를 위해 변동명 소장은 '삼국·통일신라 시기의 무등산과 광주'를 주제로 무등산의 명호(名號)와 광주의 고을 명칭, 무등산신앙과 무등산가, 개천사지 석등을 소재로 삼국·통일신라시기 광주 지역사회의 움직임의 살핀다.

또 최영주 박사(전남대)는 '삼국·통일신라시기 광주 중심지 연구'를 통해 고고자료를 중심으로 광주 중심지의 위치를 헤아리며, 이윤희 박사(전남대)는 '무등산 일원의 전통적 수리체계(水利體系) 고찰'을 통해 과거 무등산을 중심으로 하는 수리시설인 붓도랑과 수리공동체에 대해 발표한다.

유정남 연구원(전남대 5·18연구소)은 '무등산 타전의 메아리, 도시 공공화의 균열들'을 주제로 무등산 개발에 따른 도시화와 그 속의 사람들에 대해 탐색한다.

학술대회 관계자는 "지역의 상징인 무등산을 중심으로 광주와 무등산의 역사와 문화를 살피고, 나아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광주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나라 기자



조선시대 상여(왼쪽)와 다양한 형태의 인물꼭두



/동곡박물관 제공

동곡박물관 상설전시실 전면 개편

조선시대 상여·인물꼭두 70점 선배

보문복지재단 동곡박물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해학적으로 승화시킨 옛 조상들의 장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상설전시실을 개편했다.

2020년 12월 개관한 보문복지재단 동곡박물관

관은 2개의 상설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제2전시관에 조선시대 상여 1점과 인물꼭두 70점을 추가로 선보였다.

제1전시관 상설전시실에서는 고조선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전 시대를 망라한 유물 150여 점을 통해 민족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감상할 수 있다. 제2전시관 상설전시실에서는 사후세계를

지원하며 명복을 빌었던 조상들의 장례 문화를 상여와 꼭두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꼭두란 우리나라 전통 장례식 때 사용되는 상여를 장식하는 나무 조각상을 말한다. 상여는 전통 장례식 때 망자를 운구하는 도구다. 죽은 자가 저세상으로 떠나기 전 잠시 머무는 공간으로 두렵기도 하지만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동곡박물관은 장례문화라는 큰 주제는 이어가면서, 전시돼 있는 기존 상여와 꼭두를 중심으로 전시실 구성에 변화를 줬으며 조선시대 상여 1점과 인물꼭두 70점을 추가 전시했다.

동곡박물관은 전시된 상여와 꼭두를 통해 우리 조상들이 이승에서 저승으로 떠나는 망자를 어떤 방식으로 위로했는지를 조명하며, 슬픔을 승화시킨 해학이 아름다운 배움의 미학에 대해서도 질문한다.

동곡박물관 임보라 학예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기가 필요한 시대, 동곡박물관 상설전시실에서 꼭두와 상여를 감상하며 우리의 장례 문화를 살펴보고 삶의 대한 성찰과 의미를 되새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한국인이 좋아하는 가곡 무대
14일 북구청소년수련관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는 오는 14일 오후 7시 북구청소년수련관에서 '한국인이 좋아하는 가곡 1위~40위를 노래하다'를 선보인다.

이는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의 첫 공연으로, 흥남파의 '사랑'부터 윤하준의 '미중'까지 다양한 한국 가곡을 만나볼 수 있다.

이날 공연은 흥남파의 '사랑'과 금수현의 '그네'로 시작된다. 이어 김동진의 '내 마음', 이수인의 '내 맘의 강물', 윤용하의 '보리밭', 현재명의 '그 집 앞', 김순애의 '그대 있음에', 채동선의 '고향' 등이 다양한 가곡이 이어진다. 신귀복의 '얼굴'과 김성태의 '산유화', 김규환의 '남이 오시는지', 이흥렬의 '꽃구름 속에', 김동진의 '수선화'도 잇따라 감상할 수 있다.

공연은 출연진이 다 함께 무대에 올라 부르는 김동진의 '가고파'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린다. /오지현 기자

www.aroma-life.co.kr

Aroma Life
기능성 속옷의 명가 | (주)아로마라이프

名家
기능성 속옷의

쾌적/편한/예쁜/기능성 속옷은 "정밀" 있습니다.

아모리온

브라+슈트+거울
5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울+래깅스
5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비비드아모

래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

아일리 바디슈트, 슈에트, 루디아

블랙은사 바디 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흔트러져 있는 실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1.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5개국 특허 체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2.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3.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가공 원적외선 효과

광주본사 | 전문상담 사업 문의: 1588-2219 | 명품관(사차문의): 070-4909-4660 |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235 V&G빌딩 **서울본점** | 전문상담 사업 문의: 02-882-4569 | 명품관(사차문의): 070-7726-1100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